

건강 칼럼

폐암에 효과적인 치료약 개발... 고령 환자들 치료 포기 말아야

김 마 전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퇴원한 76세 남자 환자가 외래로 왔다. 환자는 퇴원 후 조금 피곤한 것 말고는 힘든 것이 없고 오히려 밤 맛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함께 내원한 아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잘 견디는 것을 보고 고마워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었고 폐암 환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많은 환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치료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어떤 분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고령이라도 젊은 환자와 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생존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폐, 신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지만, 요즈음은 과거보다 체력이나 영양 상태가 좋다.



정 치 영
대구기톨릭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따라서 절대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고령의 폐암 환자들에게 항암치료를 권유하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폐암의 경우에는 최근 효과적인 치료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폐암이 진단되면 먼저 암 조직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특

이한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우수하며 부작용이 적다. 또 폐암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 폐선암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은 면역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실제 임상에서 투여가 가능하다. 항암치료도 3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1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힘들지 않고 부

용은 훨씬 적게 발생한다. 특히 항암치료 후 발생하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등을 치료하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정도로 초기에 발견되었으나 나이가 많고 폐 기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고령 폐암 환자들은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폐기능을 개선하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폐기능을 개선하고 호흡기질환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고 함께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은 환자라도 단순히 고령이라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독자제언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 수칙

겨울철 눈으로 국도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눈길 사고는 사고 차량 이동이 쉽지 않고 사고 현장 주변은 2차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겨울철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눈길 교통사고 예방책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눈길 교통사고의 가장 좋은 예방책은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겨울철 교통대란은 대부분 출퇴근길에 발생한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차량운전을 자제하고 여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편하다. 둘째 월동장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겨울철 차량 월동장구인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모래, 삽크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운전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빙판길은 일반 도로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과 감속운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출발은 부드럽게 하고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으며 눈길에 미끄러지면 같은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커브길이나 응달진 곳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넷째 폭설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겨울철 민감한 날씨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적절한 교통통제와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해 눈길 교통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규선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독자제언

새해 달라지는 탈북민 정책

캐풀이 울려 퍼지는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에 대한 벅찬 기대를 너도나도 그러는 요즘,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희소식이 들려온다. 최근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자녀교육의 이유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탈북으로 이어져 과거와는 다른 탈북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정책'으로 개선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 장기적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를 도입한다. 탈북민에게 장기적인 지원의 방법으로 '전문설계사'로부터 상담이다. 다른 적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자신만의 진로를 상담 받고 맞춤형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인터넷에 탈북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인 '탈북민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과 의료, 교육, 등 종합서비스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 상담 및 지도를 위해 일선 학교에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조력자를 확대하여 탈북민에게 더 넓은 취업기회와 탈북청소년의 안정된 한국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탈북민에게 보다 더 따뜻한 2017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감과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다. **김미혜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2백만 인구 회복,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이때, 전북발전연구원이 그 해법을 내놓았다. 과거의 거주 인구 2백만 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역공통체 유지 등 4대 정책을 제시한 정책 브리프를 발간한 것이다. 거기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인구중핵도시를 육성하고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그것이다. 인구중핵도시 육성이라고 하니 지금의 혁신도시를 더욱 확장하고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창업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니 전주시의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익산시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여기 먼저 밝혀두고픈 것이 있다. 전북의 인구 2백만을 회복시키려면 해법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능력을 키워야 한다. 인구중핵도시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 특구를 조성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아이디어 자체로는 프로젝트라고 할 만하나 어찌 믿음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이 이어서이다. 역대 도지사들과 브레인들이 장밋빛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오늘날이다. 전북의 인구 2백만 회복은 말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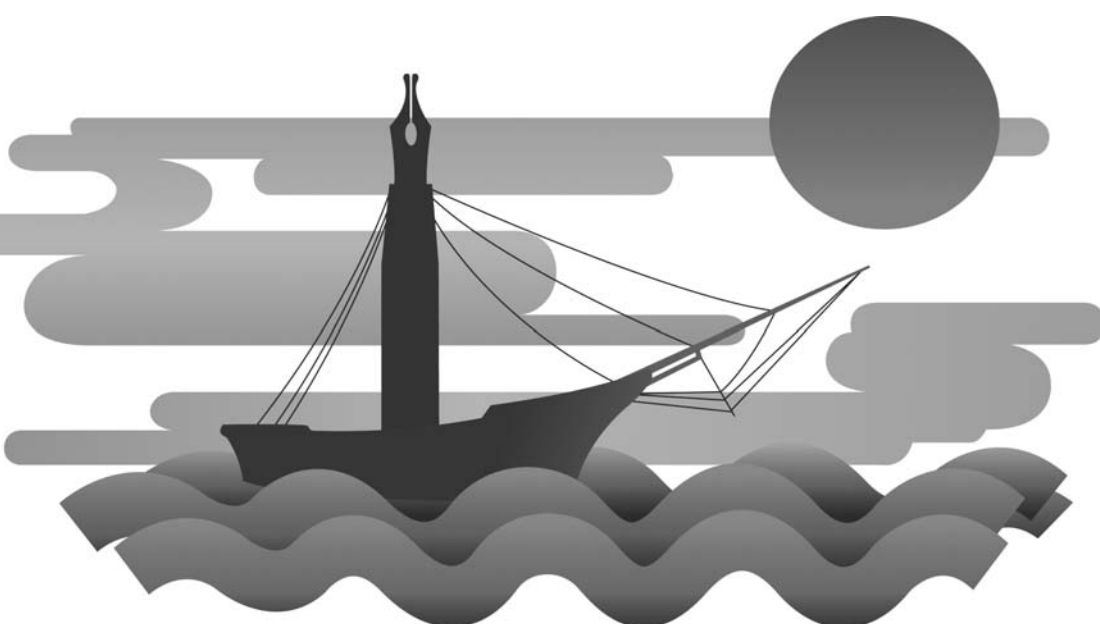
쉽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금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능력만 있다면 타지로 떠나고 싶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에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해법 찾기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돈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아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웃 광역자치체인 충청도는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호남은 갈수록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다. 전북도가 언젠가 밝혔듯이 우리 지역은 평균잡아 해마다 5천 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들이고 농촌인구들이다. 그러므로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내야 하고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내야 한다. 그게 수순이 맞다 무슨 거창한 정책 제시보다도 그게 약발이 될 것이다. 과거 1960년대 중반에 전북의 인구가 265만을 헤아렸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화가 날 지경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은 청년 인구와 농촌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실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 자립 기반 도와야

서민 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정도 잘 안돼서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다. 바로 그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들 쪽에서 못해 먹겠다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요즘 물가 인상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다들 판매 실적이 저조하며 울상이다. 그런데다 음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호황을 누리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면 좋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에 치열하니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일자리 창출 의지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면서 영세상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판이다. 연말이 접어들어, 영세상인들이 갈수록 힘들어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의 영세상인 대다수가 현재의 체감 경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루 하루 경기체감이 싸늘하다는 호소이다. 미래도 낙관적으로 내다보기 보다는 경기가 더욱 악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돈벌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지만 꼭두하는 바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영세상인 중 상당수가 적자 상태인데 전북도와 각 시군이 마음을 써야겠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직종만 바꾸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출구 찾기는 시세를 탈 일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재발하지 않음 차원의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풍기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